

축견(畜犬)의 변(辯)

축견무용론자 구보(仇甫)가 들으면 가소롭다 할지 모르나 내가 개를 한 마리 기른다. 순조선종으로 목덜미와 네 발목에 흰 점이 있다. 몸가짐새가 좀 더 안전하면 결코 추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놈이 원체 거칠어서 부엌 속에서 자고 흙탕 속에 가 덩굴고 하여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이웃집 사람들에게 「아이, 가이(황해도에서는 개를 이렇게 부른다)도 웬……」 이런 조롱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다고 나는 우리 「가이」가 그들의 「세퍼트」만 못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다만 감기가 들까봐 목욕을 시키지 못해 털이 더 미워져 있을 뿐이니 날이 따스해진 다음 말끔히 씻어 주면 아주 면목을 일신할 게다.

이놈이 우리집에 오기는 석 달 전이다. 봄이 되면 어린것이 늘 밖에 가 놀텐데 동무 없이 저 혼자 적적해 할 듯하니 강아지를 한 마리 얻어다 기르자고 아내와 상의가 되어 학생들에게 「강아지를 한 마리 얻으면 좋겠다」고 광고를 해두었다. 그랬더니 어느 눈보라치는 날 한 학생이 30리 길을 자전거를 타고 이놈을 안고 왔다. 그때 나는 그 학생의 새 파랑계 얹은 뺨과 두 손을 보고는 그 고마운 정에 정말 울 뻔했다. 그날 밤 우리는 이 강아지 이름을 검둥이라 짓고 아랫목에다 이불을 덮어 재웠다. 30리 길을 눈보라를 무릅쓰고 갖다 준 그 학생의 고마운 정을 생

각하여 이놈을 귀엽게 기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튿날 어린것이 개벼룩에 물려 온몸이 콩더덕이 된 것을 보고는 그놈을 밖으로 축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부터 검둥이는 아궁이 잿속에서 방아랫목만 못지않게 따뜻하게 자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검둥이가 밤에 따뜻하게 자면 잘수록 온몸이 재투성이가 되고 털이 그실러지고하여 동네 사람들의 조롱감이 되는 데는 어찌 하는 수가 없었다.

이렇던 놈이 그새 중개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철이 나지 못해서 갯간에나 진흙탕에 가 덩굴기가 일썤요 또 그 몸을 해가지고 말끔히 닦아 놓은 마루 위에 가 낮잠자기가 일썤다. 요사이저 저녁에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방문 앞 마루 위에 가 누워서 동네로 마실을 나가는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으레히 그는 앞집 세퍼트나 뒷집 삼살이한테 물러가지고 발을 절룩거리며 돌아왔다.

지난 6월 만주 방면으로 여행을 갔다온즉 당연히 맞아 주리라 믿었던 검둥이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다를까 뒷집 삼살이가 미쳤는데 그 삼살이한테 물려서 벌써 이틀째 밥도 먹지 않고 뒷결에서 누워 있다는 것이다. 검둥이 눈이 보지도 않을 만큼 눈썹이 다닥다닥 끼고 가죽은 그야말로 뼈에 가 감길 지경으로 살 한 점 없이 말라 붙었다. 그런 중에도 제법 도적을 지키는 체 고양이 발자국소리를 듣거나 쥐 그림자를 보고는 짓고 하는데 이날도—파스해서 집으로, 아궁이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루 위에 낮잠자던 게으른 습관이 그대로 저녁까지 연장된 것뿐일 것이다 (예까지 읽은 분은 아마 이 글이 벌써 이른 봄에 써졌다는 것을 알리라. 올봄 아직 먼 산에 눈이 다 녹지 않았을 때 쓰다가 끝맺지 못하고 그대로 책상 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것이다. 이 글의 주인공 검둥이가 우리집에서 만 2개월째 되는 오늘 나는 이 글의 끝을 맺기로 했다. 그러나 끝을 맺으면 그때와는 달라져

서 이 글은 <축견의 번>이 아니라 <검둥이의 추억>이 될 게다.

마루 위에서 자고 마루 위에서 짓고 하던 검둥이는 그후 날이 차차 더워지자 뜰 응달진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고 그곳에서 짓고 했다. 그러다 어린것이 장난을 쳤하면 기꺼이 응하여 둘이 마당에서 서로 어울려 덩굴고 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날이면 그놈은 무사했고 또 행복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어쩌다 어린것이 자는 동안에 검둥이는 심심한지 나를 보자 꼬리를 치고 일어서려 했다. 그러나 그는 앞발을 약간 움직일 수가 있었을 뿐 몸뚱아리는 완전히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검둥이가 미친 개의 발작이 시작되기 전에 처치하여야겠다 생각하고 개장수를 불렀다. 이웃사람이 3원은 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나 검둥이를 잡아가는 것을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때가 가장 이기주의자인 나는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맡기고 밖으로 나가 버렸다. 나가며 돈을 받지 말고 그냥 주어 버리라고 일렀다. 그리함으로써 검둥이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끄려 함이었으리라. 몇 시간 후에야 돌아오니 검둥이는 개장수가 2원만 내고 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거저 가져가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잡아 갔다 한다. 그런데 개장수가 검둥이 가까이 가니 검둥이가 알아차림인지 그런 중에도 한사코 반항을 하려고 하여 아내가 달려며 목에 올무를 씌워 주었다. 그리하여 그제 불쾌해 못견디겠다고 살짝 빠져나간 내게 대해 욕지거리다. 아내는 그날 저녁밥도 잘 못먹었다.

사실 우리는 며칠간은 밥을 먹다 빈 개밥통을 바라보고는 밥이 목구멍에 걸리우곤 했다. 어린것에게 검둥이 어디 갔니 이렇게 물으면 팔을 하늘로 저으며 무슨 소린지 억가억가했다. 그러더니 두 달을 지난 요사는 검둥이 어디 갔니 물어도 아무 반응이 없다. 아마 검둥이의 기억

이 완전히 그에게서 사라진 모양이다. 우리도 또한 별로 검둥이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조광》, 5권 11호, 1939. 11. 1)